

# 중소 98% “막대한 조세 부담… 가업 승계 큰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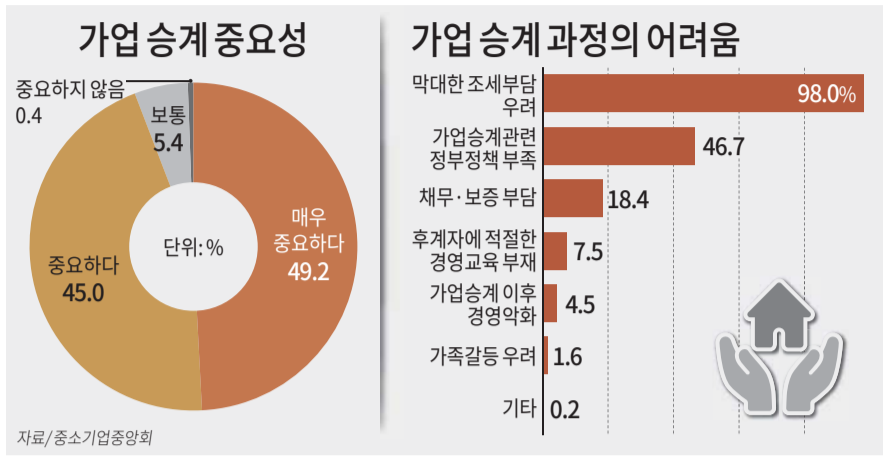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기업 500곳 설문 94.2%, 가업승계 ‘중요하다’ 세제·비세제 종합지원책 필요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영속성과 고용 유지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선 ‘세제·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업승계와 관련해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요건 완화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가운데 94.2%가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0.4%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5.4%였다.

‘중요성’에 대해선 1세대보다는 2세대 이상에서, 10~20년 미만 중소기업에서 높아졌다.

가업승계를 걸림하고 있는 이유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가 67.2%로, 2위인 ‘선대에서 평생 일귀는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 (27.3%)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98%의 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을 꼽았다. 그 다음은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 (46.7%),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 (18.4%) 등의 순이었다.

특히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에 대한 답변은 77.5%→94.5%→98%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절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

(56.8%)이라고 내다봤다. 그중에선 ‘신규투자 금지’ (31.7%)나 ‘폐업·기업매각 등’ (25.1%)이 예상되는 수순이었다.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증여 후 상속’이 66.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전증여’ (29.1%), ‘사후상속’ (3.7%) 순이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있다’가 60.4%로 ‘없다’ (8.4%)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56%)보다도 많았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사전요건 중에선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86.1%)를, 사후 요건 중에선 ‘근로자 수 유지요건 완화’ (88.8%)를 각각 개선 과제 1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97%의 기업이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지만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들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높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승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승계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 승계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기업승계자에 대한 조세 감면 ▲기업승계자 육성 및 경영 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야 한다고 덧붙이면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홈쇼핑, 모바일앱 ‘전문관 개편’

### 고객 선택의 폭 넓힌다

버티컬 커머스 강화 나서 상품 리스팅 영역 신설

홈쇼핑이 상품 카테고리별 전문화된 쇼핑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 ‘전문관’을 개편했다.

9일 홈쇼핑에 따르면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는 패션, 리빙 등 특정 카테고리에서 차별적 편의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쇼핑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홈쇼핑은 모바일 앱 내 패션샵과 리빙샵 등 전문관을 개편하며 버티컬 커머스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문관 개편을 통해 상품 카

테고리별 세부 항목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리스팅 영역을 신설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패션샵은 매일 오픈하는 ‘타임특가’ 코너를 강조하고 인기 신상품 베스트 상품을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뉴 어라이벌’ 메뉴의 디자인을 간결하고 트렌디하게 개편했다.

리빙샵에선 해당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별 특가와 혜택을 부각하고 MD가 엄선한 상품을 제안하는 ‘MD픽’ 메뉴를 신설하여 고객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김승호 기자

## 서울중기청 中企 계약학과 주관대학 모집

미래차·탄소중립·특화산업 등 분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울중기청)이 미래차, 탄소중립, 특화산업 등 미래유망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계약학과 학위과정 간 연계교육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해 운영할 주관대학을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17일까 자다.

9일 서울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도입해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한성대(스마트융합건설학과 석·박사)와 송실대(IT융합학과 석·박

## 중기부

### ‘대중소 상생’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 주관기업을 모집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주관기업’은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대중소동반진출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신청 대상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은 문화콘텐츠 전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시장조사 및 인증 비용, 공간임차료 및 장치·설치비, 판촉비,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은 국내 홈쇼핑사(주관기업)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 제품을 선별해 시장선정, 방송 상담(컨설팅), 영상 제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 등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R&D 과제 공고

중기부 예산 41억9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기업 10곳을 모집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신박방 국가의 우수 원천·혁신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 상용화 기술개발(R&D)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계속과제를 포함해

41억9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지정공모 형태로 기술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된 해외 협력기술 공모과제 안에서 현장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올해 해외 협력기술 공모과제(RFP) 개요서를 국문으로 제공해 원활한 기술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언어·문화장벽에 따른 기술협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의사소통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웰스, 전원 필요없는 ‘미미 정수기’ 출시

폭 9cm 크기에 깔끔한 디자인

웰스(Wells)가 크기는 줄이고, 실용성은 높인 무전원 직수형 ‘웰스 미미 정수기’ (사진)를 출시했다.

9일 웰스에 따르면 ‘웰스 미미 정수기’는 폭 9cm의 크기에 간결하고 깔끔한 미니멀 디자인이 돋보이는 직수정수기다. 초소형 크기에 물이 나오는 파우셋은 180도 회전 가능해 주방 공간 및 취향에 따라 가로, 세로, 코너 등 원하는 형태로 설치 가능하다.

일반적인 정수기와 같이 세로형 설치



는 물론 넓은 면을 전면으로 사용하는 가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원이 필요없는 무전원 방식을 채택해 콘센트 위치 제약이 없으며 전 기료 걱정이 없다. /김승호 기자

## BSI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법, 1980억 원 다 주식 넣은 것으로 드러나 /사진 뉴스스  
▲ 박종철 열사 35주기 “더는 인권문제 없는 국가 되길”

▲ 한국 떠난 탈북민 700여명 “생활고·차별로 적응 어려워”  
▲ 카카오 노조, 먹튀 논란 차기대표 퇴진 요구…첫 쟁의 경고



▲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전주위 작업 금지… 부정업체 즉시 퇴출  
▲ “코로나19 피해보상·생존대책 마련하라”…거리로 나선 여행업계 /사진 뉴스스